

RM, 솔로 앨범 낸다...BTS 세 번째

그들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이 솔로 앨범을 조만간 발표한다. 소속사 빅히트뮤직 관계자는 "RM이 솔로 앨범 발매 예정으로, 현재 준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방탄소년단에서는 앞서 지난 7월 제이홉, 지난 달 진이 각각 솔로 음반을 냈다. RM은 팀 내에서

세 번째 솔로 주자다. RM은 tvN 교양형 예능 '인간잡학사전' MC로도 낙점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유튜브에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며 "장르도 다 다르다. 중구난방이다"라고 귀띔한 바 있다. /연합뉴스



테일러 스위프트, 빌보드 '핫 100' 톱 10 석권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톱 10을 석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3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빌보드의 차트 예고에 따르면 테일러 스위프트는 톱 10의 모든 자리를 본인의 정규 10집 '미드나잇스'(Midnights)의 수록곡들로 채우는 데 성공했다.

'핫 100' 차트의 톱 10을 모두 자신의 곡으로 채운 아티스트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처음이다. 스위프트는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팝스타로, 지금까지 '그래미 어워즈' 11회, '빌보드 뮤직 어워즈' 29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34회를 수상했다. /연합뉴스

“꽃미남 잊으세요...노숙자 됐습니다”

정일우, 영화 '고속도로 가족' 노숙인 가족 가장 기우역 열연 구걸·떡방·육설 등 파격 변신 "고정된 이미지 깬 보석같은 작품"

영화 '고속도로 가족'에서 싱크로율 100%의 노숙인 연기로 개봉 전부터 입소문이 난 배우 정일우가 작품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28일 서울 삼정동 한 카페에서 만난 정일우는 "고속도로 가족"은 정말 보석 같은 작품이라며 "세계 가장 부합하는 캐릭터였고, 배우라면 누구나 욕심낼만한 캐릭터였다"고 말했다.

정일우는 영화 속에서 노숙인 가족의 가장인 기우역을 소화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전전하며 '만원'을 구걸하는 노숙인 가족의 모습은 그의 평소 이미지와 대조되며 '정말 정일우야?'라는 말까지 나왔다. 한 두어 달은 씻지 않은 듯한 푸석한 머리에 꼬집꼬집한 복장에서 '꽃미남' 정일우는 찾아볼 수 없다.

과거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정신적으로 아프게 된 기우는 조울증은 물론 때론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웃고 다정한 '바보 아빠'다.

극단을 오가는 캐릭터의 감정선에 정일우는 때론 낮이 나가기도, 미친 듯 방방 뛰며 육설을 내뿜는 막무가내 기우가 되기도 한다.

"굉장히 오랫동안 '영화'를 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어요. 한 장르에 안주하고 싶지 않은 갈망이 컸죠. 그런데 (영화) 관계자들 인식에는 딱 제 이미지가 갇혀 있더라고요. 껌은 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깨려고 노력해도 남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제게 보석 같은 작품이라는 겁니다."

정일우의 연기에서 '떡방'도 주목받는 부분이다. 극 중 그가 떡방이와 어묵을 입안에 씌어 답다시피 하는 장면도 나온다.

"(상대역을 했던) 김슬기 씨가 저더러 '떡방의 반열'에 오를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기우에게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허기짐'이예요. 일종의 공허함과 아픔을 먹는 것으로 채운다고 생각했어요."

정일우는 떡방을 하는 동안 사고를 겪기도 했다. 떡방이와 어묵을 먹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어묵 꼬



치가 목구멍을 찌르는 바람에 구멍이 나 병원 치료를 받고서야 촬영을 재개했다고 한다. 극 중 아빠로서 그의 모습도 좋았다는 평이 많다. 스스로 30대 중반이 됐으니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정일우는 결혼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하고 싶다"고 답했다. "제게 (영화 속처럼) 가족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결혼이요? 하고 싶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도 되고 싶고요. 하지만, 아이들을 '푸시'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교육보다는 좀 더 자연과 친구들과 함

께 지내도록 하고 싶어요." 이 영화는 이달 열린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선을 보였다. 정일우는 15년 만에 주연을 맡아 출연한 이 영화를 직접 '들고서' 부산을 방문했는데 무척 행복했다며 환하게 웃었다. "제 작품을 가지고 가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15년 만에 간 것인데 감회가 새롭고, 저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왔다는 게 배우로서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연합뉴스

‘커튼콜’ 출발이 좋다

고두심·하지원·강하늘 가족 서사...드라마 첫 방 시청률 7.2%

몽글한 가족 서사를 담은 KBS 2TV 월화드라마 '커튼콜'이 7%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 방송된 고두심·하지원·강하늘 주연의 '커튼콜'의 첫 회 시청률은 7.2%로 집계됐다.

전날 방송은 6·25 전쟁 피난길의 참담함과 애절함을 고스란히 재현시킨 1950년 12월 흥남부두에서 시작했다.

피난길에 오른 젊은 시절의 자금순(하지원)은 남편에 이어 아들과 연달아 생이별했다. 인연 연안에서 홀로 국밥 장사로 사업을 시작한 자금순은 2020년 전국에 대형 체인점을 거느린 낙원 호텔 회장이 됐지만,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살날이 길어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노년의 자금순(고두심)이 북에 두고 온 남편과 아들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딱딱한 슬픔을 안겼다. 평생 가슴에 가족을 품고 살아온 자금순이 2002년 제4차 이산가족 상봉 자리에서 아들과 손자를 마주한 장면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한편, 자금순(고두심)의 젊은 시절 미모를 속 빼달라는 막내 손녀 박세연(하지원)은 호텔 총지배인으로 성장했고, 호텔을 매각하려는 큰 오빠 박세준(지승현)과 대립하며 극의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자금순의 오른팔인 정상철(성동일)은 흥신소에서 자금순의 손자 리문성(노상현)의 행적을 찾았는데, 그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문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실망한 정상철은 리문성 대신 연극 무대에서 북한군을 연기한 청년 유재현(강하늘)을 찾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무대에서 연극을 할 생각이 있냐'고 제안하며 이야기의 새로운 물꼬를 텄다.

'커튼콜'은 6·25 전쟁 피난길에서 시작한 서사를 첫 회에 호텔 사업을 하는 재벌의 서열 다툼으로 빠르게 전개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자금순의 애절한 가족 서사를 압축적으로 그리면서 자칫 신파로 빠질 수 있었던 감정선을 다잡았다.

고두심, 하지원, 성동일, 강하늘 등 연기파 배우들의 안정감 있는 연기는 등장인물 간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각각의 고유의 캐릭터를 잘 살려냈다. 고두심, 성동일, 강하늘은 북한 역양도 자



연스럽게 소화했다.

무엇보다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자금순을 연기한 고두심과, 큰오빠에 맞서 할머니의 유산인 호텔의 가치를 지키려는 박세연 역의 하지원 사이의 연기 호흡이 잘 맞았다. 두 배우는 시대는 달라도 삶의 풍파 속에서 자신이 믿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굳센 여인들을 섬세하게 연기했다.

한편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는 1일 KBS 2TV 월화극 '커튼콜'의 OST '민들레야'를 발표했다.

'민들레야'는 극중 시한부 할머니 자금순이 북녘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다. 동양적이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조수미의 목소리와 잘 어울린다.

프로듀싱에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금상 출신으로 슈퍼주니어 려욱, 트와이스, 우주소녀 등과 작업한 빨간머리앤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